

머무다 3 - “집” 이사야 58:6-7

소개: 비어있지 않은 종교

- 이사야서 58장 시리즈 - 유다 왕국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다. ○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이 분열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때도 아니고 지금도 아닙니다.)
 -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일하십니다.
 -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남쪽 왕국에 보내시어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를 멈추지 않으면 그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 선지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장비를 갖추고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 선지자들은 거의 항상 부서진 세력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이사야.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합니다.
 -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가서 로마서 1장을 읽어 보십시오. 그는 오래 참으며 참을성이 있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항하면 “괜찮아요. 내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당신의 뜻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 이 예언은 또한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올 축복을 묘사합니다.
 - 하나님과 그분의 길로 동행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 이것은 번영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당신이 그런 일들을 결코 혼자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 우리는 이 시리즈를 “머물다Dwell”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12절에 달려 있습니다.

12 네 백성이 옛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그리고 오래된 기초를 세울 것입니다.

너는 부서진 성벽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주거지가 있는 거리를 복원하는 사람. 이사야. 58:12

- '머물다 Dwellings' 또는 'Dwell' = 집
- 오늘 내 메시지 제목은 '집'입니다.
- 집은 당신이 태어난 곳이어야 합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요! 이것이 나의 진짜 조국이다! 나는 여기에 속한다. 이곳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땅인데, 지금까지 몰랐지만... 더 위로, 더 안으로 들어와! -CS 루이스, 마지막 전투(나니아 연대기, #7)

- 당신이 창조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 집 = 목적
- 우리 모두에게는 목적이 필요하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젊은이들의 위기와 그것이 목적의 필요성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강조합니다.)
-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주거가 있는 거리 복원자”)
-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만 당신이 창조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 각자에게는 믿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의해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의 부서진 세상을 치유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목적이며, 그분은 그 목적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 '실생활에 대한 믿음' - 나를 변화시킨 개념. 나는 복음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포틀랜드 다운타운의 중심부에 살면서 나는 도시의 파괴된 현실과 복음이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깊은 확신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도록 강요하고 복음을 사람들의 목구멍에 밀어 넣는 것은 결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을 입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 우리의 믿음은 실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구절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 58장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없으며, 그들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 이것은 이사야 58장의 공허하고 죽은 종교이다.

이행:

- 이사야에서. 58 - "사람들의 영적인 수행과 나머지 삶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수행이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선지자가 말하는 종류의 행동과 관련됩니다." - 존 골딩게이

MVMT 1: 요약: 지배 시스템 해체

지난 주에 제이미는 이사야 58장의 이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럼 6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6 “내가 선택한 음식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의의 사슬을 풀기 위해

그리고 멍에의 줄을 풀어라.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모든 멍에를 꺾을까? - 이사야 **58:6**

이사야가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에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일종의 '나' 반응.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온 왕국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 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불공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잠재적으로 여러분 중 일부를 잃게 될 곳입니다. 거기 좀 기다려주세요!

나는 우리가 사회적 악이나 제도적 불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들었어요 .. 저는 '너무 진보적'이거나 '너무 깨어있습니다'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라벨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제도적 불의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머리 꼭대기에서 수백 개의 "예를 들어"를 덜컥 덜컥 울릴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나와 함께 이 과정을 조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중 일부가 겪고 있는 문화적 조건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1. 개인의 영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공익을 위한 심오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무시합니다.
2. 이는 서구 문화, 특히 미국 문화의 과도한 개인화로 인해 더욱 심화됩니다. 이 구조는 더 넓은 시스템이 사람들을 억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위험하며, 따라서 부트스트랩으로 스스로를 들어올릴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삶에도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긴장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저는 아이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텐트촌으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건물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이 캠프에 사는 아이들에게 음식, 의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르토프랭스만이 내려다보이는 까르푸. 이곳은 국가를 황폐화시킨 지진의 진원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는 거의 15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보내 대응했습니다. 저는 지진이 발생한 지 약 2년 후에 아이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만을 내다보면서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이 매일 거기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꼭 찻습니다. 물어보니 전세계에서 파견된 보좌관들이 전부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부패한 정부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림보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분노를 느낀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소수의 탐욕이 수십만 명의 불필요한 죽음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은 형제와 자매, 어머니, 아버지, 사촌, 친구들이 불의의 시스템 뒤에 갇힌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바라보며 죽습니다.

이사야가 아이티에 대한 예언을 썼다면, 그것은 불의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현재 진행 중인 더 넓은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기록된 이중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둘 다 참여해야 합니다.

ii. 사회적 악이나 제도적 불의와 같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iii.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불의, 권력 남용, 탐욕 등의 실제 문제를 인정하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영적 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가 우리 어깨 위에 앉아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작은 악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적인 유혹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영적 차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구별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자, 골로새서의 바울에 따르면 심지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그들은 집단, 문화, 교회 등에 영향을 미치는 타락한 시스템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진짜 놀이라고 믿지 않고 불의의 시스템이 그림자 속에서 번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 훈련받지 않으면 그들을 잘못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미국 시민권 운동가들은 인종차별적 폭력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형태의 어둠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비폭력 저항'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지도, 수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길을 따랐습니다. 어둠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어둠과 맞섰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 반지의 힘을 휘두른다고 해서 힘의 반지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지만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종적 동기를 지닌 대서양 횡단 노예제도가 윌리엄 월버포스에 의해 패배한 것과 같은 방식이며, 결국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헤이트가 패배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노예 제도, 짐 크로우/뉴 짐 크로우, 식민화, 수용소, 규제, 빈곤, 국경 정책, 이민 문제, 마약과의 전쟁, 성 정체성 위기, 정신 건강 위기, 부의 격차 확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폭력과 팔레스타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자신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옳고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 제도와 가치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도 이 세상 제도에 속하지 말고 하늘 제도에 속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그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없으며, 어둠의 세력으로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 현실을 순진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행:

이사야 58장 6절은 진정한 믿음이 세상의 불의한 제도를 인정하고, 맞서고, 해체하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어둠과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당신의" 책임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세대(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믿음을 해체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듣는 것입니다. 6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해체하고 세상의 불의한 시스템을 해체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인기가 없는 것이 해체한 후에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7절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MVMT 2: 정의 + 정의로 재구성

그가 원하는 “금식”(신앙의 영적 생활)은 불의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냐?” - 이사. 58:7

“우리 동네 노숙자 야영지 이야기. 스칼렛의 무조건 반응과 나의 조건 반응.”

1. 우리 마음의 상태

-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까?)
- “정치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눈에 띄기 위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보다 변화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 없는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자마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히스테리 상태로 변합니다. 그들은 논점을 암송하고 헤드라인을 참고하면서 이들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 예수님이 생각나더군요. 그는 항상 레이더를 피해 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군중이 얼마나 번덕스럽고 명성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이해했습니다!

관심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소사, 그게 우리 현대, 특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인가요...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대중에게 소비될 필요는 없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 의해 변화되고 형성됩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7 ● 7절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방랑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벌거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이사야. 58:7

2. 우리 손으로 하는 일

● 나는 엔지니어, 부동산, 보디빌딩, 기계공, 간호사, 기업, 디지털 공간 등 수많은 건축업자 출신입니다. 내 이야기의 어느 시점에서 나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건축업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체나 디지털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을 위해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

● 이는 개인의 자선 활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구절 전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방향을 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당신이 가진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초월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이 그러한 방향으로 향할 때 당신도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4 도시 이니셔티브

물

최근의 아프리카 선교는 B4Church가 케냐,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니제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 프로젝트'는 단순히 시추공을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은 항상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역을 볼 때 고려하는 솔루션은 다양합니다. 물의 출처는 호수나 강, 지붕 집수, 얕은 우물, 깊은 시추공 또는 심지어 도시 시스템(물을 제공하지만 식수로 처리해야 하는 물)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르완다에서는 대부분의 마을이 화강암 언덕 위에 있습니다. 드릴링이 불가능하므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샘이나 천연 물통을 찾습니다. 우리는 루코메로(Rukomero)에서 태양열 수자원 시스템을 설치할 곳을 찾았습니다.

비전은 물 시스템을 갖춘 지역 교회를 개척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 축복이 되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경우, 부룬디의 Busiga 에는 2015년에 광범위한 물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매 킬로미터마다 급수소가 있지만 마지막 두 곳에만 물 흐름이 있습니다. 펌프가 고장나서 현재 펌프와 함께만 절뚝거리며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Beaverton의 크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시스템을 재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B4Church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Serges Nsabimana(부룬디의 Foursquare 국가 지도자)는 “우리가 함께 수행하는 수자원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이야기도 너무 많습니다. (Mark의 이니셔티브 나열)

이사하는 일을 하려는 노력들입니다. 58:7은 말합니다. -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시스템을 재구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MVMT 3: 급진적인 관대함 - 자신의 관대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 자신의 삶과 피를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 이사. 58:7

여기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결국 당신 자신의 삶과 피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급진적인 관대함의 삶을 구현함으로써 이기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빈곤, 식량 부족,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부족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동기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풍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며 함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이고 매우 간단합니다.

16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17** 그는 속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농작물을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18 그러자 그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남은 곡식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그리고 나는 속으로 '너희가 여러 해 동안 쓸 곡식을 많이 쌓아 두었다'고 말할 것이다. 인생을 편하게 지내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농아! 바로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이 당신에게서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얻겠느냐?'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16-21**

당신이 재무 설계사라면 예수께서 은퇴에 대한 건전한 조언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401k나 기본 저축 계좌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돈을 고금리 저축 계좌에 넣어 언젠가는 더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이것은 정말 현명한 청지기직처럼 보입니다. 그는 수확량이 풍부하고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 더 큰 헛간을 짓고 일찍 은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 58은 이미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보는 자신을 위해(아마도 그의 가족까지도) 자신의 자원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은 자원(심지어 풍부한 자원까지도)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질문은 “모든 것의 주인이 내게 주신 몫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까?

이 회중의 일부 사람들은 연합하여 부룬디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물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더 큰 헛간”은 더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원과 기회를 주신 이유임을 안다면, 그 자원을 동원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지질 공학 엔지니어입니다. 어쩌면 설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역 사람들과 제품을 사용하여 지역의 깨끗한 수자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모두가 설교하는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무능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전문 코더일 수도 있고, 전문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숙련된 의사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단순한 수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가 되어 부패한 정부에 책임을 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학자일 수도 있고, 종종 개발도상국으로 운송되어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지런히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재능, 재능, 자원, 경험을 가져다준다면 나는 당신이 Isa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58:6-7

(물 밖으로 나가서 가족, 교회, 이웃 및 지역 사회에도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정의의 일이 어려울 때 그를 믿겠습니까? 당신의 노력에 맞서는 어둠의 정사와 세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삶과 우리 세상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목적보다 그분의 목적을 믿을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제도를 거부하고 천국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시겠습니까?

처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니면 백만 번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 즉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집이 있는 거리를 건설하는 자”가 되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순간입니다.

응답: Casey가 노래를 썼습니다.

“나를 모두 가져라”